

재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이 흡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전정구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서영욱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재창업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재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 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재창업자의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재창업자에게 심리적 요인들 중 긍정심리자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하는 궁금함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대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지원자금을 받은 재창업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한 144명의 표본자료를 SPSS 24.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을 Smart PLS 3.0을 활용하여 구조모형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창업자의 심리적 특성인 긍정심리자본을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의 3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행적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은 잠재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행적 흡수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은 잠재적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행적 흡수역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적 시사점과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재창업자, 긍정심리자본, 흡수역량, 의사결정의 질

1. 서론

우리나라의 최근 창업기업의 수와 폐업기업의 수를 <표 1>로 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90만개 이상의 기업이 폐업하고 있고 창업기업대비 폐업기업 비율은 약 70%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소기업연구원(김선화·백필규,

2019)에 따르면 창업실패에 따른 심리적/경제적/사회적 피해 상황은 가족과 주변인에게 미안한 감정, 빚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 수입이 없어 생계 곤란,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 등 꼬리표,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재창업자의 정신적 충격 등으로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들어 재창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및 학술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표 1> 부가가치세 신고기준 폐업자수 추이

년도	법인기업			개인기업			계		
	창업 (A)	폐업 (B)	폐업비율 (B/A)	창업 (A)	폐업 (B)	폐업비율 (B/A)	창업 (A)	폐업 (B)	폐업비율 (B/A)
2014	111,627	54,296	49%	1,015,619	761,328	75%	1,127,246	815,624	72%
2015	122,696	50,630	41%	1,068,313	739,420	69%	1,191,009	790,050	66%
2016	125,717	69,600	55%	1,100,726	839,602	76%	1,226,443	909,202	74%
2017	124,787	70,362	56%	1,159,802	837,714	72%	1,284,589	908,076	71%
2018	130,139	69,667	54%	1,242,756	830,884	67%	1,372,895	900,551	66%

자료 : 국세청(2019) "국세통계연보" 연구자 재가공

* 주저자,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박사과정, jhjun9@daum.net

** 교신저자, 대전대학교 융합컨설팅학과 교수, ywseo@dju.kr

· 투고일: 2020-09-30 · 수정일: 2020-12-11 · 게재확정일: 2020-12-22

정책적 관심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재창업 지원정책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 학술적 관심은 중소기업연구원, 카이스트 기업가정신센터 등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실패한 기업인들이 실패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실패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고(McGrath, 1999; Politis & Gabrielsson, 2009)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재창업자들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꺼린다(Shepherd et al., 2009). 이러한 이유로 재창업자에 대한 실증연구가 어렵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3년 평균 창업대비 폐업비율이 7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재창업자의 어떠한 심리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재창업으로 이어지는지 실증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표 2> 재창업 지원정책

기관명	정책 및 제도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재창업 기업의 재도전 종합 상담 및 지원 창구로 상담, 재창업 자금 융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재창업 자금(일반)	실패 기업인의 신용회복 지원과 필요한 운전 시설자금 융자지원
	재창업 자금(융자상환조정형)	재창업에 필요한 운전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고, 성실실패 시 융자상환금 일부를 감면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재기보증	실패했던 기업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들에게 추가 자금조달과 채무상환을 위한 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재기보증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채무조정과 재기 자금의 신규보증을 일괄하여 지원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자 및 법적 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기 가능성을 평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
서울보증보험(주)	재도전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재창업자금 융자기업에 대해 납품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이행 보증보험을 담보없이 신용으로만 발급 지원
에스케이 뉴챌린지 펀드 등 운용사	재기지원펀드	정부 민간출자로 조성된 재기 지원펀드를 우수한 재창업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여 재기를 지원하면서 투자 수익도 창출하는 펀드
창업진흥원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계획을 보유한 우수(예비) 재도전기업을 발굴하여 재창업 교육·멘토링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일괄 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	사업실패로 신용도가 낮아 일반 R&D 사업 참여가 힘든 재창업자에게 R&D 자금을 지원하여 실패 기업인의 기술·경험·노하우 시장 방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사업	기업이 핵심 원천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지원하여 강한 특허로 무장한 글로벌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컨찬스 프로그램	콘텐츠 분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한 성공적 창업 및 회생 지원
재기중소기업개발원	재도전 사관학교	재도전 기업인의 특성과 단계에 맞는 교육과 정부 재도전 정책이 연계된 재도전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재도전 방향 제시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자 성실경영평가 제도	재창업 전의 기업을 분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
신용회복위원회	중소기업인 재창업 지원	사업실패로 채권신용회사에 30억원 미만의 채무가 있는 기업인에 대해 채구감면, 분할상환 등을 통해 경제적 재기 및 재도전 기회를 제공
국세청	재기중소기업인 조세지원	국세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재기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재기를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2019) "중소기업 재도전지원제도" 연구자 재가공

특히, 본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을 다룬 이유는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창업자가 창업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들 때문이다(이준성·송인암, 2019).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재창업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여 긍정심리자본 요인인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이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해 보았다. 다만, 긍정심리자본의 낙관주의는 “실패를 경험으로 단고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는 마음가짐(Luthans & Youssef, 2004)”으로 이미 실패를 극복하고 재창업을 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본 연구의 대상자에게는 연구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 요인인 자기효능감이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 요인인 희망이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셋째, 재창업자의 긍정심리자본 요인인 회복탄력성이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넷째,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행적 흡수역량이 재창업자의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재창업자

창업가는 처음 기업을 창업하여 운영하는 초보창업자인 신진창업자 (Novice Entrepreneur), 지속적으로 여러 기업을 창업하는 연쇄창업자 (Serial Entrepreneur), 동시에 여러 기업을 경영하는 포트폴리오 창업자 (Portfolio Entrepreneur)로 크게 구분된다(Westhead & Wright, 1998). 여기서 재창업기업이란, 연쇄창업가가 순차적으로 창업한 새로운 기업을, 연쇄창업가는 재창업자를 의미한다(배영임·신혜리, 2019).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재창업자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 1의2항 ‘재창업’이란 중소기업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동법 “제2조 2항의 ‘재창업자’란 중소기업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재창업의 범위에 대한 정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2 (재창업의 범위) 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재창업은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한다. 즉, 우리나라의 재창업자는 부도 또는 파산을 거쳐 어려움을 경험한 창업자이다. 창업경험이 있다는 의미에서는 연쇄창업가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의미하는 재창업자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연쇄창업가는 실패 경험이 없이 창업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의미가 다르다(배영임, 2014).

김인수·이택구(2018)의 연구에 따르면 실패 경험이 자산이 되고, 실패 이후, 경험(자산)이 진부화되기 전에 빨리 재창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창업 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기술경쟁력, 지적재산권 건수, 융복합 R&D비용 지출비중, 4차 산업혁명 준비수준과 같은 혁신특성 요소에서 재창업기업과 신진창업 기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창업 경험에 따라 혁신특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배영임·신혜리, 2019).

2.2 긍정심리자본

긍정심리자본은 심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긍정심리학과 긍정심리자본의 조직적 응용인 긍정적 조직 행동 연구와 더불어 발전된 개념으로 구성원의 복합적인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의미한다(Youssef & Luthans, 2007; 이동섭·최용득, 2010). 또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낙관성 등의 하위 핵심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다(Luthans & Jensen, 2002; 김동철·김대건, 2012).

자기효능감은 Bandura(1986)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인지이론에서 유래되었고, 경영학 조직행동 연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기부여 등과 같은 인지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신념”으로 정의 한다(Stajkovic & Luthans, 1998).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갖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벽에 부딪쳐도 체념하지 않는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다(이동섭·최용득, 2010). 자기효능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경험학습과 심리적, 생리적 자극으로 개발되고 육성”될 수 있다(김명희 외, 2013). 자기효능감은 긍정심리자본의 네 가지 하위변인 중에서 긍정조직행동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의 기준에 최우선으로 부합하는 변수(Luthans, 2002b; Youssef & Luthans, 2007)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있다.

첫째, 다양한 선행연구로 이론 근거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지지를 얻고 있다. 둘째, 자기효능감은 다른 세 변인과는 다르게 언제나 변화와 개발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Bandura, 1997). 셋째, 자기효능감은 메타분석 결과에서도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ajkovic & Luthans, 1998).

희망 (Hope)은 긍정적 심리 활동 영역에서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라고 정의한(Snyder, 2002)의 희망이론에 의해 정립되었다. 긍정심리자본에서의 희망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주도적인 결정을 하며 에너지를 집중하여 목표달성을 하려는 의지, 긍정적인 동기부여이다(Snyder, 2002). 또한 “희망은 성공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경로, 목표를 지향하는 의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으로 목표, 경로, 의지가 희망의 주요 개념요소”라고 하였다(Snyder, 2002). 그래서 희망의 긍정심리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연한 사고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장애를 만났을 때 해결하려는 수단을 더욱 잘 강구한다고 한다(이채익, 2010).

회복력은 “회복의 의미가 이전 수준 상태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상위의 수준”이라고 하였다(Luthans & Youssef, 2004). 회복력은 어려움이나 고난, 갈등과는 상치되는 개념으로 이타적이며 긍정적 의무감에 대처할 수 있는 풍요의 긍정심리 역량이다(Luthans, 2002a). 또한, 회복력을 고난이나 실패, 불확실성, 또는 긍정적이지만 큰 부담을 주었던 사건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긍정적 사건에서 회복하는 차원을 넘는 의지까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함으로써 심리자본의 관점에서 회복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다(Luthans et al., 2007).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요소에서도 잘 대처하고 적응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다. 또한,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려운 대처 상황에서도 잘 대처한다. 이렇듯 회복력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회복 이상으로 나아가는 의지의 발현이다. 또,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처음으로의 마음 상태로 회복하는 능력은 물론 그 역경조차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동철·김대건, 2012).

2.3 흡수역량

흡수역량은 조직의 R&D 능력이 경제적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슈페터’ 주의 경제학 이론에서 출발하여 이후 인지심리학 및 조직학습이론과 연계하여 발달한 개념(Deeds, 2001)이다. 빠른 변화의 지식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 있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대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소유한 지식과 연관된 지식에서 외부에서 유입, 이를 결합하는 흡수역량을 높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 일 것이다(Kogut & Zander, 1992).

흡수역량은 네가지 요소로 구성된다(Zahra & George, 2002). 첫째는 인식과 습득으로 외부에서 창출된 지식을 식별하고 습득하는 기업의 능력이다. 둘째는 이해와 동화로 기업활동으로 외부에서 획득한 정보를 분석, 가공, 해석을 거쳐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이다. 셋째는 변형과 내부화로 조직 내부에 있던 지식과 획득한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이다. 마지막 넷째는 활용과 실행으로 새롭게 습득하고 변형한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역량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김봉선·김인수,

2009).

이러한 흡수역량은 다시 잠재적 역량 (Potential absorptive capacity: PACAP)과 실행적 역량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RACAP)으로 구분할 수 있다(Zahra & George, 2002). 잠재적 흡수역량은 습득과 동화를 통합한 것이고, 실행적 흡수역량은 변형과 활용을 통합한 것이다.

잠재적 흡수역량의 개념은 지식의 획득 (acquisition)을 “외부에서 생성되거나 존재하고 있는 지식 중 조직에 필요한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탐색하여 획득하는 것”이다(Zahra & George, 2002).

실행적 흡수역량의 개념은 “외부로부터 획득한 지식을 내부에 흡수하여 지식을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김봉선·김언수, 2009). 또, “흡수능력의 하위구성 요소로서 두 가지의 흡수능력은 항상 공존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는데 필요하지만 충분하지는 않은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기업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동화하더라도 그것을 변형하고 활용하여 실질적인 이윤창출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Zahra & George, 2002). 여기에서 활용 (exploitation)은 내재화된 지식, 정보, 기술을 조직의 일상적인 활동과 더불어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Zahra & George, 2002). 조직의 실제적인 성과 (outcome)는 활용을 통해서만 창출한다.

2.4 의사결정의 질

의사결정이란 당면한 문제해결에 반응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의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행위이다(Simon, 1992). 의사결정에 필요한 행동특성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Simon(1956)은 제한된 합리성을 통해 의사결정 행동을 설명하였고, 인지적 제약과 주변 환경의 구조로 인지적 제약은 기억력과 같은 개념이고, 주변 환경의 구조는 정보와 시간의 양 같은 것이라 하였다. 또, Simon(1956)은 인간은 지식 및 시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없지만, 의사결정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환경 속성이 인간의 선택과정을 단순히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제한된 합리성은 사람이 가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모든 가능성과 결과를 검토하지 못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의사결정의 인지적 처리 과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요소로 감성 (emotion)영향과 불확실성 (uncertainty)하에서의 의사결정의 문제는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최도영·이건창, 2016). 감성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고 발생하는 현상이기에 사회적 환경하에서 개인의 의사결정 시 심리적 요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Isen, 1990),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은 확률이 주어지는 위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Wu 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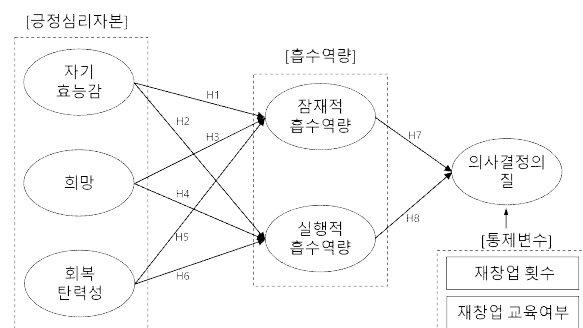
al., 2004). 이런 불확실성 하에서 의사결정을 질 (質)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위험과 손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경영 환경에서 소비자의 잠재적 결과에 대한 정교화 성향을 촉발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거나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이러한 조직성향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Haws et al., 2012). 또한 편견을 줄이고 조직 차원에서 의사결정의 질(質)을 향상시키는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의사결정에 성찰적 접근방식 (reflective approach)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Kahneman & Egan, 2011). 이런 성찰적 접근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줄이고, 기업은 경제적 손실을 줄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 또한,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Wooldridge & Floyd, 1990)고 하였다. 윤재우(2018)는 “창조적 사고를 통한 비정형적 의사결정과, 분석적 사고에 기반을 둔 정형적 의사결정과정이 융합되어 진 문제 탐색, 문제 인식, 대안의 탐색 및 평가, 대안의 선택 및 실행, 결과 및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5가지의 경영전략과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의사결정은 개인과 기업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고, 전략에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대안을 선택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목표 설정, 조직 구성,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유통채널, 가격,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사결정 과제가 있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재창업자들의 긍정심리자본이 흡수역량의 잠재적 요인 및 실행적 요인을 통해 의사결정의 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재창업의 횟수, 재창업 관련 교육 여부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연구의 모형

3.2 가설의 설정

3.2.1 자기효능감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한 요인인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이 과정에서 동기부여 등과 같은 인지적 자원들을 동원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신념으로 정의”한다. 한편, 흡수역량은 “외부지식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흡수역량은 인지심리학과 조직학습 이론이 발달한 개념으로 빠른 변화 속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것보다 기존 보유한 지식과 외부에서 유입한 지식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개념이다.

과거의 경험 및 위험감수적 성향이 기업가로서의 자기효능감과 창업 의도를 강화한다고 주장하였고, 자기효능감과 다양한 업무성과 간의 유의한 관련은 실증적으로도 강력한 지지를 받아왔다(Stajkovic & Luthans, 1998). 또, 재창업자의 실패 경험이 단순히 학습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대안들을 탐색하고 활용함으로써 문제해결 전략들을 찾아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Kapur, 2008).

김동한 외(2015)은 “높은 수준의 자기효능감을 나타내는 사람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추구할 가치를 파악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것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였고 여기에서 다양한 방법을 찾는 노력은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재창업자의 성공시킨다는 자기효능감은 과거의 실패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탐색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흡수역량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재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1: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은 재창업자의 잠재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은 재창업자의 실행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2 희망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한 요인인 희망은 “긍정적 심리활동 영역에서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라고 정의”한다. 또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 자기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에너지를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이다. 희망은 시련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굳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며, 직무성과와 직무태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이동섭·최용득, 2010).

중소기업의 부도 및 폐업은 기업인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이해관계자 모두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김선화·백필규, 2019). 경제적 손실은 기업인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적 위축과 함께 개인의 수입감소 및 빚 등의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한다. 심리적 손실은 기업가의 혁신 아이디어와 경영 노하우가 방치되는 것은 물론, 고통(pain), 양심의 가책, 창피, 두려움 등의 심리적 피해도 막대하다.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반복되지 않으려는 희망의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또, 희망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이나 새로운 대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연구 되었다(Luthans & Youssef, 2004).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과거의 창업 경험과 실패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창업자의 긍정적 동기부여 상태인 희망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3: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은 재창업자의 잠재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은 재창업자의 실행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3 회복탄력성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한 요인인 회복탄력성은 “고난이나 실패, 불확실성, 또는 긍정적이지만 큰 부담을 주었던 사건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긍정적 사건에서 회복하는 차원을 넘는 의지까지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실패라는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적응을 이루어 내는 심리 기제가 발견되었는데, 이를 나타내는 변수가 회복탄력성으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Luthans & Youssef, 2004).

이러한 긍정적 심리 기체인 “회복탄력성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 즉흥적인 대응, 유연함, 적응력이 요구된 상황에서 더욱 커지며, 부적응을 해소하고, 긍정 정서가 확장되어 조직 내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김동한 외, 2015). 이러한 영향은 흡수역량과 관련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실패 후 재창업을 진행한 재창업자의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인 회복탄력성이 흡수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5: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은 재창업자의 잠재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은 재창업자의 실행적 흡수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4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흡수역량 (absorptive capacity)은 “새로운 정보의 가치를 인식하고 동화하여 상업적 용도에 응용하는 기업의 역량”으로 정의(Cohen & Levinthal, 1990)하고, Lane & Lubatkin(1998)은 “새로운 지식자원을 인식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내재화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잠재적 흡수역량은 지식의 획득 (acquisition)을 “외부에서 생성되거나 존재하고 있는 지식 중 조직에 필요한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탐색하여 획득하는 것”이다(Zahra & George, 2002). 실행적 흡수역량은 “외부로부터 획득하고 동화된 지식, 정보, 기술을 내재화 (transformation)하고 활용 (exploitation)”하는 것이다.

의사결정이란 “당면한 문제해결에 반응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의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행위”이다(Simon, 1992). 이러한 의사결정은 기업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을 구축하고, 기업에 유리하며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으로 의사결정의 질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이건창 외(2009)의 연구에 따르면 “지식을 통한 개인의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의사결정의 성과 즉,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변희지·서영욱(2020)의 연구에 따르면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흡수역량과 의사결정의 질에 대한 선행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재창업자의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와 다음과 같이 가설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 7: 잠재적 흡수역량은 재창업자의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실행적 흡수역량은 재창업자의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설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 연구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 취지에 맞도록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긍정심리자본은 3가지 자기효능감, 희망, 회복탄력성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 4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잠재적 흡수역량은 “외부에서 생성되거나 존재하고 있는 지식 중 조직에 필요한 지식을 인지하고, 이를 탐색하여 획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새로운 지식의 습득 수준, 시장의 변화를 인식하는 속도, 시장 요구 및 변화의 파악 속도”의 3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실행적 흡수역량은 “외부로부터 획득하고 동화된 지식, 정보, 기술을 내재화 (transformation)하고 활용 (exploitation)하여

조직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지키는 조직역량이라고 정의하고, 새로 취득한 지식 관리 수준, 새로운 외부 지식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정도,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청취수준, 새로운 지식의 활용방법에 대한 고민 정도”의 4개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의사결정의 질은 “당면한 문제해결에 반응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행동의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행위의 질이라고 정의하고, 의사결정의 현실성, 의사결정의 공정성,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확신하는 정도,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최종의사결정의 품질이 높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5개 설문항목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설문지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연구변수	항목	참고자료	
긍정심리자본	자기 효능감	계획한 목표의 대부분을 달성	Chen et al.(2001), Snyder et al.(1996), Smith et al.(2008)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완벽하게 수행	
		많은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극복	
	희망	어려운 일도 잘 처리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 기대	
		내 미래에 대해 항상 낙관적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성공할 것이라 기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감	
	회복 탄력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	
		직장에서 꽤 성공적이라는 생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낼수 있음	
흡수역량	잠재적	새로운 지식의 습득	Zahra & George(2002), Jansen et al.(2005), 배용일·서영욱 (2019)
		시장의 변화를 인식	
	실행적	시장 요구 및 변화의 파악	
		새로 취득한 지식 관리 수준	
		새로운 외부 지식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한 청취	
의사결정의 질	새로운 지식의 활용방법에 대한 고민	Chang et al.(2014)	
	의사결정의 현실성		
	의사결정의 공정성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확신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3.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받은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들은 측정 항목별로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1차 Pilot 설문을 진행한 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본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국의 재창업자 614명에게 배포하

였으며, 145명이 응답하고 1개의 불성실 응답을 제외하고, 144개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은 SPSS 24.0를 활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의 빈도 분석하였고, Smart PLS 3.0을 사용하여 설문 통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는 <표 3>과 같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선행 연구의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도록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IV. 실증 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지 응답자 144명의 표본 특성은 <표 4>와 같다.

<표 4> 표본의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8	95.8
	여성	6	4.2
연령	30-39	6	4.2
	40-49	42	29.2
	50-59	69	47.9
	60대 이상	27	18.8
업종	기계/소재	28	19.4
	정보통신	15	10.4
	바이오/의료	9	6.3
	전기/전자	22	15.3
	화학	4	2.8
	에너지/자원	6	4.2
	지식서비스	19	13.2
기타	41	28.5	
사업장 소재지	대전/세종/충청	15	10.4
	서울	50	34.7
	인천/경기	47	32.6
	강원	19	13.2
	경상	11	7.6
	전라/제주	2	1.4
	기타	0	0.0
재창업자 업력	1년 미만	15	10.4
	1~3년 미만	50	34.7
	3~5년 미만	47	32.6
	5~7년 미만	19	13.2
	7~9년 미만	11	7.6
	9년 이상	2	1.4
매출액 규모 (2019년 기준)	1억 미만	29	20.1
	1~5억 미만	54	37.5
	5~10억 미만	16	11.1
	10~30억 미만	42	29.2
	30억 이상	3	2.1
합 계	144	100	

응답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138명 (95.8%)이고 여성이 6명 (4.2%)이다. 연령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가 6명 (4.2%), 40대가 42명 (69.2%), 50대가 69명 (47.9%), 60대 이상이 27명 (18.8%)이다. 업종별 특성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이 15개 (10.4%), 기계·소재가 28개 (19.4%), 바이오·의료가 9개 (6.3%), 전기·전자가 22개 (15.3%), 화학이 4개 (2.8%), 에너지·원자력이 6개 (4.2%), 지식서비스가 19개 (13.2%), 기타가 41개 (28.5%)이다. 소재지별 특성을 살펴보면, 대전·세종·충청이 15개 (10.4%), 서울이 50개 (34.7%), 인천·경기가 47개 (32.6%), 강원이 19개 (13.2%), 경상이 11개 (7.6%), 전라가 2개 (1.4%)이다. 업력별 특성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이 15개 (10.4%), 1년 이상 3년미만이 50개 (34.7%), 3년 이상 5년 미만이 47개 (32.6%), 5년이상 7년 미만이 19개 (13.2%), 7년 이상 9년 미만이 11개 (7.6%), 9년 이상이 2개 (1.4%)이다. 마지막으로 매출별 특성을 살펴보면, 1억 미만이 29개 (20.1%), 1억 이상 5억 미만이 54개 (37.5%), 5억 이상 10억 미만이 16개 (11.1%), 10억 이상 30억 미만이 42개 (29.2%), 30억 이상이 3개 (2.1%)이다.

4.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 및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5>에 정리하였다.

<표 5> 요인분석 및 신뢰성

측정개념	항목명	요인 적재치	t값	CR	Cronbach- α	AVE	
긍정 심리 자본	자기 효능감	1	0.788	11.368	0.907	0.935	0.784
		2	0.909	47.854			
		3	0.928	41.214			
		4	0.909	41.705			
	희망	1	0.890	31.511	0.888	0.923	0.750
		2	0.894	27.891			
		3	0.788	20.079			
		4	0.889	33.512			
	회복 탄력성	1	0.842	18.057	0.909	0.936	0.785
		2	0.865	11.570			
		3	0.927	81.417			
		4	0.909	54.385			
흡수 역량	잠재적	1	0.846	12.913	0.865	0.918	0.791
		2	0.910	80.538			
		3	0.875	119.554			
	실행적	1	0.848	30.695	0.902	0.932	0.774
		2	0.884	40.472			
		3	0.753	13.275			
		4	0.945	52.850			
의사결정의 질	1	0.955	22.415	0.922	0.941	0.762	
	2	0.860	36.998				
	3	0.908	32.520				
	4	0.827	19.419				
	5	0.922	35.048				

* Chronbach- α >0.7, CR>0.7, AVE>0.5

변수를 구성하는 설문 문항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가 0.7 이상이면 신뢰성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수들이 0.918 이상으로 충족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수렴 타당도는 복합 신뢰도 (CR)와 평균분산 추출값 (AVE) 값을 확인하였고, 복합 신뢰도는 0.865-0.922로 0.7보다 높고, 평균분산추출값은 모두 임계치 0.5보다 높은 0.750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의 수렴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4.3 판별 타당성 분석

<표 6>에서 대각선 숫자들인 평균분산추출값 (AVE) 제곱근 값과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 6> 판별타당성 검토

측정개념		①	②	③	④	⑤	⑥
긍정 심리 자본	① 자기효능감	0.885					
	② 희망	0.768	0.866				
	③ 회복탄력성	0.707	0.711	0.886			
흡수 역량	④ 잠재적	0.508	0.480	0.551	0.889		
	⑤ 실행적	0.598	0.658	0.645	0.649	0.880	
의사결정의 질	⑥ 의사결정의 질	0.647	0.605	0.560	0.596	0.657	0.873

* 상관관계의 대각선 요소는 AVE의 제곱근 값임.

판별 타당도 (Discriminant Validity)는 평균분산추출값(AVE)의 제곱근과 각 잠재변수의 상관 계수들을 비교하여 검증한다. 평균분산추출값 (AVE) 제곱근이 변수들 간 상관 계수보다 크면 판별 타당도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수들 간 상관 계수보다 대각선상의 평균분산추출 (AVE) 값들이 크기 때문에, 이 연구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설문 문항에 대한 판별 타당도는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4.4 가설검증

본 연구에 대해서 가설 검증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것처럼, 가설 2와 가설 3을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가설이 채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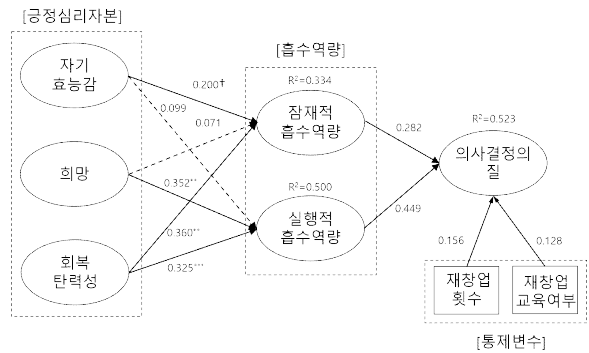
<표 7> 경로분석

가설 번호	경로명칭	경로계수	t-값	검증결과
H1	자기효능감 → 잠재적	0.200	1.550†	채택
H2	자기효능감 → 실행적	0.099	0.959	기각
H3	희망 → 잠재적	0.071	0.553	기각

H4	희망 → 실행적	0.352	2.902**	채택
H5	회복탄력성 → 잠재적	0.360	3.285**	채택
H6	회복탄력성 → 실행적	0.325	3.463***	채택
H7	잠재적 → 의사결정의 질	0.282	2.275*	채택
H8	실행적 → 의사결정의 질	0.449	3.030**	채택
실패횟수		0.156	2.687	기각
재창업 교육 경험여부		0.128	2.404	기각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단측검증 기준)

앞의 경로분석 결과를 검증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이상의 가설 및 연구모형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 $p < 0.1$, * $p < 0.05$, ** $p < 0.01$, *** $p < 0.0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은 잠재적 흡수역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행적 흡수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희망은 잠재적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행적 흡수역량에는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재창업횟수 (경로계수 0.156), 재창업교육여부 (경로계수 0.128)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창업횟수와 재창업교육 여부가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Smart PLS 3.0의 bootstrapping 방법으로 특정간접효과(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 <표 8>에 제시하였다.

매개변수인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에 대한 간접효과의 검증 결과, 자기효능감과 의사결정의 질 사이에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행적 흡수역량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희망과 의사결정의 질 사이에 잠재적 흡수

역량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행적 흡수역량의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과 의사결정의 질 사이에서는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행적 흡수역량 모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매개효과 분석

경로	경로 계수	표준 편차	T값	P값	결과
자기효능감 → 잠재적 흡수역량 → 의사결정의 질	0.060	0.048	1.172	0.121	없음
자기효능감 → 실행적 흡수역량 → 의사결정의 질	0.050	0.054	0.823	0.205	없음
희망 → 잠재적 흡수역량 → 의사결정의 질	0.020	0.037	0.531	0.298	없음
희망 → 실행적 흡수역량 → 의사결정의 질	0.171	0.091	1.754*	0.040	있음
회복탄력성 → 잠재적 흡수역량 → 의사결정의 질	0.102	0.059	1.714*	0.043	있음
회복탄력성 → 실행적 흡수역량 → 의사결정의 질	0.137	0.056	2.611**	0.005	있음

*p<0.05, **p<0.01

V. 결론

본 연구는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긍정심리자본이 흡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이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것으로 연구 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각각의 가설들을 검증하였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자기효능감은 잠재적 흡수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적 흡수역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패경험을 가진 재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은 잠재적 흡수역량의 선행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긍정심리자본의 희망은 잠재적 흡수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적 흡수역량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심리자본의 회복탄력성은 잠재적 흡수역량 및 실행적 흡수역량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잠재적 흡수역량과 실행적 흡수역량은 의사결정의 질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자 (CEO)의 긍정심리자본이 흡수역량을 통하여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분석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재창업기업 관련한 이론적 토대를 확장하였다. 즉,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가설의 채택 및 기각은 재창업 관련 후속 연구자들에게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긍정심리자본 이론 및 흡수역량 이론에 대한 확장 측면에서 본

연구가 재창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이론적 배경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이번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긍정심리자본의 희망 및 회복탄력성 요인이 흡수역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창업 정책수립에 있어서 재창업기업 대표들의 긍정심리자본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흡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의 습득이나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재창업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흡수역량이 의사결정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창업자에게 정보를 잘 전달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 및 시스템적 지원정책을 통해 재창업기업이 당면문제를 잘 해결하고 이후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의사결정의 질도 높아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창업진흥원 등 타기관으로의 표본 확장을 통해 향후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재창업기업 대표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설문 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한계이다. 모집단 및 표본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창업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표본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최근 3년간 매년 90만개의 폐업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실패에 따른 두려운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재창업기업 대표님들의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게 밝혀야 할 필요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REFERENCE

김동한·이상민·이원석(2015). 긍정심리자본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CO기업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5(5), 221-237.

김동철·김대건(2012). 긍정조직행태 주요 요인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진성리더십, 심리적 자본, 심리적 주의의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4), 27-51.

김명희·김광우·남차현(2013). 호텔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이 종사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16, 137-160.

김봉선·김인수(2009). 지식 탐색, 흡수능력과 혁신의 속도. *전략경영연구*, 12(1), 1-24.

김선화·백필규(2019). *재창업중소기업실태와 사회적기업 모델을 활용한 제도전*. 서울: 중소기업연구원.

김인수·이택구(2018). 신용문제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과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3(2), 15-26.

변희지·서영욱(2020). 경영자의 직무스트레스가 기업네트워크와 흡수역량을 통해 의사결정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8(9), 159-167.

배영임(2014). 재창업 기업의 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9(3), 13-22.

배영임·신혜리(2019). 재창업 기술중소기업의 혁신특성 차이 및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GR1 연구논총*, 21(3), 79-97.

배용일·서영욱(2019). IPP 일학습 훈련생과 참여기업 현장교사의 개인특성이 훈련생의 고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사

- 회적통합과 흡수역량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2), 83-93.
- 윤재우(2018).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이동에 따른 융합적 디자인경영 전략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고찰.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논문집*, 53, 1-15.
- 이건창·서영욱·한민희(2009). 유비쿼터스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개인의 흡수역량을 통하여 업무성과, 직무몰입, 그리고 의사결정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38(5), 1307-1328.
- 이동섭·최용득(2010). 긍정심리자본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9(1), 1-28.
- 이준성·송인암(2019). 창업자의 자기효능감이 창업기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4(5), 61-78.
- 이채익(2010).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자본과 태도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대학원.
- 중소벤처기업부(2019). *중소기업 제도전 지원제도*. 대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최도영·이건창(2016). 불확실성을 수반한 경영의사결정시 긍정부정 감성이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뉴로사이언스 기반의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45(4), 1147-1172.
- Bae. Y. I.(2014). Performance Drivers of Entrepreneurial Restar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3), 13-22.
- Bae. Y. I., & Seo. Y. W.(2019).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IPP Work-Learning Trainees and Field Teachers of Participating Companies on Trainees' Employability: Focusing on Social Integration and Absorption Capabilities of Compan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2), 83-93.
- Bae. Y. I., & Shin. H. R.(2019). A Study on the Innovation Characteristics Difference and Performance Decision Factors of Re-start SMEs. *GRI Review*, 21(3), 79-97
- Bandura, A.(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3), 359-373.
- Bandura, A.(1997). *Self-self 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Freeman.
- Byun. H. J., & Seo. Y. W.(202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erpriser Job Stress on Decision Quality through Corporate Network and Absorption Capac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9), 159-167.
- Chang, H. H., Hung, C. J., & Hsieh, H. W.(2014). Virtual teams: cultural adaptation, communication quality, and interpersonal trust. *Total Quality Management & Business Excellence*, 25(11-12), 1318-1335.
- Chen, G., Gully, S. M., & Eden, D.(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Choi. D. Y., & Lee. K. C.(2016). Neuroscience Analysis Approach to Investigating the Effect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on Decision-Makers Business Problem-Solving Creativity under Uncertainty. *korean management review*, 45(4), 1147-1172.
- Cohen, W. M., & Levinthal, D. A.(1990).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28-152.
- Deeds, D. L.(2001). The role of R&D intensity, technical development and absorptive capacity in creating entrepreneurial wealth in high technology start-ups.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18(1), 29-47.
- Haws, K. L., Bearden, W. O., & Nenkov, G. Y.(2012). Consumer spending self-control effectiveness and outcome elaboration prompt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5), 695-710.
- Isen, A. M.(1990). *The influ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on cognitive organization: Some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Jansen, J. J., Van Den Bosch, F. A., & Volberda, H. W.(2005). Managing potential and realized absorptive capacity: how do organizational antecedents matt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8(6), 999-1015.
- Kahneman, D., & Egan, P.(2011). *Thinking, fast and slow vol. 1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 Kapur, M.(2008). Productive failure. *Cognition and instruction*, 26(3), 379-424.
- Kim. B. S., & Kim. E. S.(2009). Knowledge Search, Absorptive Capacity, and Innovation Speed. *Journal of Strategic Management*, 12(1), 1-24.
- Kim. D. C., & Kim. D. G.(201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elements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focusing on genuine leadership, psychological capital, and psychological main perceptio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4), 27-51.
- Kim. D. H., Lee. S. M., & Lee, W. S.(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apital on organizational culture: Focused on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s) Company.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27(5), 221-237.
- Kim. I. S., & Lee. T. K.(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Re-startup Firm's Performance by the Condition of Credit Problem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2), 15-26.
- Kim. M. H, Kim. K. W., & Nam. C. H.(2013). The Effects of 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y on the Turnover Intent for Hotel Employees: Mediating Roles of Group Image, Group Trust, and Job Resul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6(4), 137-160.
- Kim. S. H., & Paik. P. G.(2019). *Re-challenge using SMEs and social enterprise models*. Seoul: Korea Small Business Institute.
- Lee. C. I.(2010).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cused on the Mediating Role of Psychological Capital and Attitudes*. Doctoral dissertation, Ulsan University.
- Lee. D. S., & Choi. Y. D.(2010). A Study on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Organizations. *korean management review*, 39(1), 1-28.
- Lee. J. S., & Song. I. A.(2019).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Founder's Self-Efficacy on the Sales of the Founding Compan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4(5), 61-78.

- Lee, K. C., Seo, Y. W., & Hahn, M. H.(2009).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Ubiquitous DSS on Task Performance, Job Involvement, and Decision Quality Through Individual Absorptive Capacity. *korean management review*, 38(5), 1307-1328.
- Kogut, B., & Zander, U.(1992). Knowledge of the firm, combinative capabilities, and the replication of technology. *Organization science*, 3(3), 383-397.
- Lane, P. J., & Lubatkin, M.(1998). Relative absorptive capacity and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9(5), 461-477.
- Luthans, F.(2002a).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3(6), 695-706.
- Luthans, F.(2002b).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Perspectives*, 16(1), 57-72.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3), 541-572.
- Luthans, F., & Jensen, S. M.(2002). Hope: A new positive strength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Human resource development review*, 1(3), 304-322.
- Luthans, F., & Youssef, C. M.(2004).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mics*, 33(2), 143-160.
- Youssef, C. M., & Luthans, F.(2007).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workplace: The impact of hope, optimism, and resilience. *Journal of management*, 33(5), 774-800.
-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4(1), 13-30.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019). *SMEs re-challenge support system*. Daejeon: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 Politis, D., & Gabrielsson, J.(2009). Entrepreneurs' attitudes towards fail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5, 364-383.
- Shepherd, D. A., Covin, J. G., & Kuratko, D. F.(2009). Project failure from corporate entrepreneurship: Managing the grief pro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4(6), 588-600.
- Simon, H. A.(1956). Rational choice and the structure of the environment. *Psychological review*, 63(2), 129-138.
- Simon, H. A.(1992). What is an "expla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science*, 3(3), 150-161.
- Smith, B. W., Dalen, J., Wiggins, K., Tooley, E., Christopher, P., & Bernard, J. (2008). The brief resilience scale: assessing the ability to bounce 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3), 194-200.
- Snyder, C. R., Simpson, S. C., Ybasco, F. C., Borders, T. F., Babyak, M. A., & Higgins, R. L.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21-335.
- Snyder, C. R.(2002). Hope theory: Rainbows in the mind. *Psychological inquiry*, 13(4), 249-275.
- Stajkovic, A. D., & Luthans, F.(1998). Self-efficacy and work-relate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24(2), 240-261.
- Westhead, P., & Wright, M.(1998). Novice, portfolio, and serial founders: are they different?.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3), 173-204.
- Wooldridge, B., & Floyd, S. W.(1990). The strategy process, middle management involvement,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1(3), 231-241.
- Wu, G., Zhang, J., & Gonzalez, R.(2004). Decision under risk. *Blackwell handbook of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399-423.
- Yoon, J. W.(2018). A Consideration Study for an Integration Design Management Strategy and Decision Making Process Due to Movement from Manufacturing Industry to Service Industry. *Journal of Cultural Product & Design*, 53, 1-15.
- Zahra, S. A., & George, G.(2002). Absorptive capacity: A review, reconceptualization, and extens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7(2), 185-20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on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through Absorption Capacity of Re-founders

Jung-gu Jun*
Young-Wook S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self-efficacy, hope, and resilience, which are factors of th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of the re-startup CEO, on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through the absorption capacity, and the effect of the re-startup's absorption capacity. In particular, this study was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h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ould affect to the re-startup CEO.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re-founders who received funding from Korea SMEs & Startups Agency. And 144 sampl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4.0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by using Smart PLS 3.0. for SEM. The factor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were extracted to three factors: self-efficacy, hope, and resilience. As a result, it is shown that self-efficacy had a positive effect on potential absorption capacity, and hope had no effect on potential absorption capacity, and positive effects on realized absorption capacity. Resilience has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otential absorption and realized absorption capacity. It has been shown that potential absorption and realized absorp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decision making. This study is intended to provid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KeyWords: Re-startup,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bsorption Capacity, Quality of Decision-Making

* First Author, Ph. D. Course, Department of Management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jhjun9@daum.net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Management Consulting, Daejeon University, ywseo@dju.kr